**삼상3111 Note**

**Cross check 삼상1101-11**

삼상1101. 그때에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길르앗을 대적해 진(陣)을 치니라, 그리고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하니라, 우리와 혈약[베리트:바라(고기)에서 유래,자르다,조각들,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동맹연합,연맹,약조: 창1510 참조]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니라,

삼상1102. 이에 암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니라, 이 조건 위에서 내가 너희와 혈약을 맺을 것이니 곧,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들을 파내서(나카르:구멍을 뚫다,꿰뚫다,파내다,파다,골라내다,찌르다,밀어내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치욕(헤르파:모욕적인,치욕,외음부,참소,책망,수치)을 위해 놓을 것이니라,

삼상1109. 그리고 그들이 온 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와같이 너희는 야베스길르앗의 사람들에게 말할지니라, "내일 해가 뜨거운 이때쯤에 너희가 도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녀주니라, 이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삼상1111. 그리고 이튿날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사울이 백성을 셋의 무리들로 놓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보케르:새벽,아침,낮,일찍,내일) 파수 (아쉬무라:야간,경계,파수)의 때에 군대의 가운데로 들어와서, 낮의 열기의 때까지 암몬인들을 죽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남아있는 저들이 흩어져서, 저들이 둘이 함께 남겨지지 않았느니라,